

‘영산강 고대문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복암리 전용옹관고분·백제 목간 등

나주시 26일 동신대서 1차 워크숍

나주시가 영산강 유역의 고대 문화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나섰다. 나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1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5층 세미나실에서 ‘영산강 고대문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워크숍을 갖는다.

나주시와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이 주최하고, 동신대학교박물관(관장 이상필)이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1단계로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나주시 지역 영산강 고대 문화유산으로는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고대묘제로 평가받는 대형 전용옹관고분인 복암리 고분군과 복암리 고분군 ▲고대성곽인 자미산성과 회진성 ▲복암리 고분군 주변에서 출토된 고대의 기록물인 백제 목간(木簡) 등이 있다. 워크숍 1부에서는 세계문화유산 지정제도와 절차(허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영산강 고대문화의 특징과 성격(임영진 전남대학교)이 발표된다.

이후 2부에서는 경주 세계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 사례(이재경 경주시청)와 익산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사례(문이화 전북문화재연구원)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나주시는 다음달 22일 국립나주박물관 개관일에 맞춰 2차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년에는 두차례에 걸친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영산강 고대문화 보존과 한국 역사의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유적을 정비해왔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올해 두차례에 걸친 전문가 워크숍이 영산강 고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영산강 역사문화의 독창성을 국내외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희기자 yjason@



반남고분군 전경.

해남 화산면사무소 직원 사랑의 고구마 나눔 행사

황토고구마로 유명한 해남군 화산면의 아름다운 고구마 나눔행사가 올해도 이어졌다.

해남 화산면(면장 박남재)사무소 직원들은 4년전부터 손수 지어 수확한 황토고구마를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요양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에 전달하고 있다. 직원들은 올해도 1000여㎡에 고구마 순을 심고 정성을 다 해 가꾼 덕에 모두 130박스를 수확했다. 직원들은 수확한 고구마를 관내 복지단체인 선화 노인요양원(해남읍), 소망 노인회(삼산면), 해바라기 노인복지시설(삼산면), 겨자씨 공동체(육천면), 두란노 지역아동센터(화산면)와 관내 독거노인 20여명에게 전달했다.

박남재 화산면장은 “직원들이 직접 심고 수확한 고구마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뜻 있는 지역 주민들이 동참해 보다 의미 있는 행사가 된 만큼 매년 지속적으로 나눔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친절 3S 운동’ 실천하는 민원실

yes)는 의미에서 ‘친절 3S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개량 한복을 입은 전남도청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23일 민원인을 맞이 전에 친절한 인사 연습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민원인을 일어서서(Stand up) 웃으면서 맞이하고(Smile) 긍정적으로 답변하자(Say

(전남도 제공)

전남 친환경농산물 총청권까지 진출

6개 생산업체-6개 유통업체, 330억 규모 구매약정 체결

전남도가 총청권 보육시설·유치원과 학교 급식에 전남산 친환경농산물 납품을 위해 친환경 전문 유통기업과 대규모 구매약정을 체결하는 등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2013 대한민국농

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농축산물 가공전시관에서 6개 소비자 유통업체 대표와 6개 도내 생산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330억원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체결에 참여한 유통업체는 롯데마트, 아그로닉스, 제주 김마트, 오복식품, 해나루 조합공동사업법인, 운림가 등이며 전남도내 생산업체는 남도미향, 한마을공동체, 진도 선진농협, 신안솔트, 자연과농부들, 자연그대로 등이다.

6개 유통업체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국내 최대의 글로벌 유통기업(롯데마트), 제주 최대 슈퍼마켓 운영(제주 김마트), 농식품 전문 생산·유통기업(아그로닉스), 국내 최대 장류 생산·유통업체(오복식품), 학교급식·단체급식(해나루 조합공동사업법인, 운림가) 등 식자재 유통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영남권 교두보 확보에 이어 해나루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제주 김마트 등 총청·제주까지 납품처를 확대해 전남의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급될 전망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정책관은 약정식에서 “전국 최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인 전남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중견 유통기업과의 구매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며 “생산자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 소비처에 납품하는 유통업체에도 많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함평군, 조사료생산단지 지원사업 선정

함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조사료전용생산단지 지원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함평군은 앞으로 5년간 조사료 제조 운송비, 생산장비, 종자, 퇴비 등을 지원받는다. 함평군은 조사료전용생산단지를 기반으로 현재 2908ha의 조사료 재배면적을 2018년에는 5220ha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국 9곳의 사업대상 중 하나로 선정된 함평군은 그동안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다.

함평군은 올해 조사료 생산의 집단지·규모화·기계화를 구축하기 위해 장비구입비 15억6000만원을 지원했고 경쟁농가와 축산농가 장려금으로 군비 10억원을 투입했다. 김봉택 함평군 축수산과장은 “한·미, 한·EU FTA 타결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는 수입으로 인한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양축농가의 재료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담양군-담양우체국, 복지사각 해소 공조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협약

담양군과 담양우체국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민원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담양군은 지난 2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최형식 군수와 송영수 우체국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혼자 사는 고령자 증가, 복지정책 확대 등 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민원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집행원들이 우편물을 배달하

며 마을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의 생활 및 건강 상태, 불편 및 위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군에 신속히 알려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서류를 배달하면서 공공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관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에 1596명이 서비스의 주 대상자로 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야말로 고령인 농촌지역에 필요한 만큼 이번 협약은 민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지난해 담양 성암국제수련원에서 열린 성암 청소년 국제캠프.

청소년이여! 국제적 마인드 키워라

오늘 담양서 ‘성암 국제캠프’ 열려

국제청소년교육재단(이사장 이강열)이 주관하고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재)이 후원하는 ‘제10회 성암 청소년 국제캠프’가 담양군 수북면에 있는 성암국제수련원(원장 나도팔)에서 막이 오른다.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열리는 국제캠프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청소년육성이라는 제단의 교육방침 아래 원어민교사와 전남도내 중학교 2학년생 250명이 참가한다. 이번 캠프는 특히 환경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감성으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축제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캠프 기간 동안 국제 이해교육 강좌, 환영포스터 만들기, 요리경연대회, 문화의 밤(비올라공연, 무용공연, K-pop 댄스공연), 밤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병풍산 별빛 축제, 병풍산 숲속탐방, 환경모니터링 동(나무곤충 만들기, 카프라 쌓기, 환경 미니올림픽), 원어민 교사가 직접 운영하는 각국 문화소개(CAP) 등이 펼쳐진다. 나도팔 성암국제수련원은 “교류활동을 통해 벽을 허물고 환

경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함께 공존하면서 국제적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열 국제청소년교육재단 이사장은 “대차연속에서 여러 국가의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이 호흡하면서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고 미래를 개척하는 소중한 캠프가 됐으면 한다” 밝혔다. 글로벌교육의 요람인 국제청소년교육재단은 개원 32년 동안 125만명 이상이 체험 활동에 참여했고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프랑스, 몽골 등 6700명의 지구촌 청소년들이 국제교류 활동에 참가해 우의를 다졌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신안 공무원들, 정치후원금 2770만원 전달

깨끗한 정치문화 발전 일조

신안군 공무원 297명이 깨끗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소액 정치후원금 2770만원을 최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후원금은 지난해 1239만원에 비해 123%가 증가한 것으로,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후원금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 중앙선거위

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다. 기탁금을 기부한 사람은 연말정산 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삼희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은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를 향한 또 하나의 참여”라며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에 현혹되지 않고 소신있는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조성에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파소소 방문 위문품 전달

목포교육지원청

전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오)은 23일 제6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관내 파소소 10곳을 방문, 컵라면 등 푸짐한 선물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김재오 교육장은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생활지도에 위해 애쓰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단 한건의 학교폭력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

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하당파소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다음달 7일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차질 학생들의 행동이 문란해질 것에 대비해 교육청과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3년제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전후해 관내 파소소를 방문,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협조 요청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흑산도·장도, 철새 이동 요충지 알린다

신안, 서울서 국제심포지엄

신안군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동으로 2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7회 국제철새심포지엄’을 연다. ‘동북아시아 조류 보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미국, 일본, 러시아 3개국 전문가와 국내 연구진이 모여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 아프리카, 북미 지역 등 주요 철새 이동경로 상의 나라는 철새 연구와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됐지만 아시아에는 이렇다 할 협력관계가 없다. 이번 회의는 철새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 등 국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틀 마련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동철새 370여 종 30만 개체 이상이 통과하는 지리적 요충지인 흑산도와 장도 등에 국내외 전문가 현장 답사를 통해 신안의 중요성을 국제 사회에 부각시킬 계획이다. 군은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와 협력해 국내의 철새의 이동경로 실태 및 서식지 이동 패턴 연구 등 조류생태계 보호 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흑산도에 국제 철새공원을 조성, 세계적인 철새연구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